

미국의 이민동향과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¹⁾

Immigration's Impact on Past and Future U.S. Population Change

임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1. 들어가며

미국은 전통적으로 세계 각국에서 유입된 이민 자들로 구성된 대표적인 국가로서, 이미 1850년부터 미국 내 이민자에 대한 통계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이민 관련 법률 제정과 이민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이민정책은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는데, 특히 1952년에 제정되고 1965년에 개정된 「이민 및 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은 지난 50년간의 미국 이민 제도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온 근간이자 이민제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동 법은 국적에 따라 이민자 수를 할당하는 쿼터제도를 폐지하고, 가족의 결합을 최우선적으로 강조함과 동시에 숙련된 기술을 보유하거나 고등교육을 받은 이민자를 유입하도록 함으로써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또한 동 법의 영향으로 남아메리카와 아시아계의 이민자가 빠른 속도로 대거 증가하게 되었으며, 미국의 인구증가와

함께 인구구조적 특성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반면, 여러 인종과 국적의 이민자가 증가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불법체류자의 유입이 확산됨에 따라 내국인과 이민자간의 갈등 심화, 내국인의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확산, 사회통합의 문제 등 또 다른 이슈들도 동시에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그 비율은 낮은 수준이나 2000년 이후 국내 체류 외국인과의 결혼이민자의 수가 차츰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저출산현상이 심화되고 고령화사회로의 이동이 급속히 이루어지면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최근 이민정책에 대한 논의가 부각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 시안이 발표되면서 이민정책이 처음으로 포함되었으나, 국내 경제상황, 이민자 변화 추이, 국내 출산율, 생산가능인구 등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는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여전히 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 미

1) 본고는 Pew Research Center에서 2015년 9월 28일에 발간한 "Modern immigration wave brings 59 million to U.S., driving population growth and change through 2065: Views of immigration's impact on U.S. society mixed" 최종보고서를 요약·정리한 것임.

국은 태생적으로 이민자로 구성된 나라이므로 이민의 특성과 이민정책 등은 우리나라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근래의 미국 이민 동향과 이민자 특성을 살펴보고, 인구추계를 통해 향후 이민자들이 미국의 인구변화에 미칠 영향과 내국인의 이민자에 대한 인식에 대해 중점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이민자 특성의 변화 (1970~2013년)²⁾

1) 출생지역

1965년의 「이민 및 국적법」 개정 이후 미국으로

유입된 이민자들의 주된 출생지역은 시기별로 그 흐름이 달라진다. 먼저 1970년대 이전에는 유럽에서 출생한 이민자가 대다수를 차지했으나, 1970년 이후 유럽계 이민자는 전체 신규 이민자³⁾의 30%로 감소하게 되고, 새롭게 중앙 및 남아메리카에서 출생한 이민자는 20%, 아시아계가 19%, 쿠바 등의 캐리비안계가 18%를 차지하며 이민자의 출생지역이 점차 다양화되었다. 1980년대 이후부터는 그 흐름이 다시 바뀌어 아시아 국가들과 멕시코에서 출생한 신규 이민자의 비율이 급증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아시아계 이민자는 36%, 중앙 및 남아메리카계 이민자는 31%를 차지하면서 처음으로 유럽계 이민자(14%)의 비율을 월등히 넘게 된다. 이러한 흐름은 중앙 및 남아메리카계 이민자의 증

표 1. 출생지역별 신규 이민자의 비율(1970~2013년)

(단위: %)

지역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3년
중앙 및 남아메리카	20	31	41	48	28
멕시코	11	22	26	34	15
기타	9	9	15	13	13
아시아	19	36	31	25	41
유럽	30	14	11	13	10
캐리비안	18	7	7	7	10
아프리카	2	3	2	4	8
기타 ¹⁾	11	9	7	3	3
전체	100	100	100	100	100

주: 1) 기타에는 캐나다, 대서양 섬, 호주, 뉴질랜드, 태평양 섬 등이 포함됨.

자료: Pew Research Center tabulations of 1970~2000 U.S. decennial census data and 2013 American Community Survey (IPUMS); Pew Research Center.(2015). Modern immigration wave brings 59 million to U.S., driving population growth and change through 2065: Views of immigration's impact on U.S. society mixed, Washington DC: September, p.35.

2) Pew Research Center.(2015). Modern immigration wave brings 59 million to U.S., driving population growth and change through 2065: Views of immigration's impact on U.S. society mixed, Washington DC: September.

3) 신규 이민자 수는 인구 총 조사 당해 기준, 이전 5년 동안의 미국으로 유입된 미국 외 출생자를 합한 수임.

가로 인해 2000년대까지 지속된다. 1986년 「이민 개혁 및 조정법(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 제정에 의한 남미지역의 불법이민 억제에도 불구하고, 2000년에는 중앙 및 남아메리카계 신규 이민자는 전체 이민자 중 절반에 가까운 48%에 이르며, 특히 멕시코에서 출생한,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이민자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여 전체 이민자의 34%를 차지하게 된다. 그러나 2007년 이후 미국의 경기불황, 일자리 부족, 국경선 통제 강화 등의 이유로 불법체류자 수는 점차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멕시코 출생 이민자의 수는 현저히 줄어서 2013년 멕시코 이민자의 비율은 전체 신규 이민자 중 15%에 그치게 된다⁴⁾. 그 결과, 중앙 및 남아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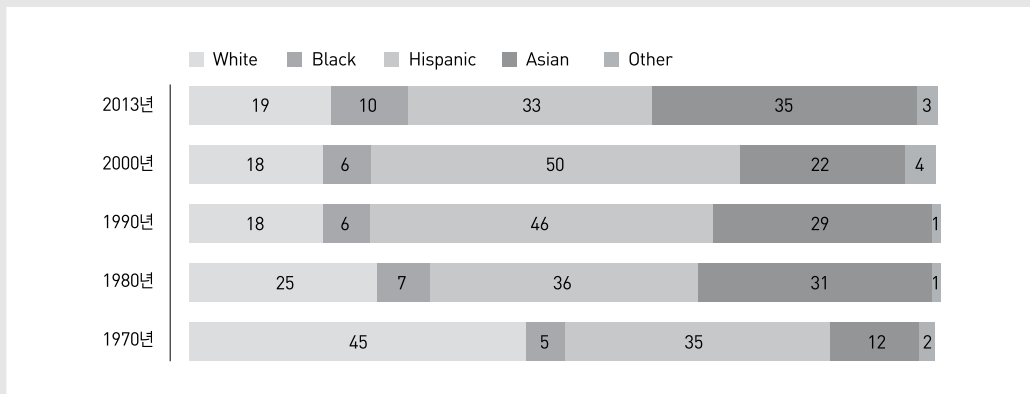
리카계 신규 이민자는 28%로 감소한 반면, 아시아계 이민자는 취업영주권자의 증가에 따라 2000년과 2013년 사이에 신규 이민자의 비율이 30%나 증가하여 2013년에는 가장 높은 비율인 41%에 이르렀다⁵⁾.

2) 인종

신규 이민자의 인종은 예상대로 이민자의 출생지역 변화와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여전히 백인이 절반에 가까운 45%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로는 남미와 아시아계 이민자의 급증으로 인해 히스패닉이 전체 신규 이민자의 절반을 차

그림 1. 인종별 신규 이민자의 비율(1970~2013년)

(단위: %)



자료: Pew Research Center tabulations of 1970–2000 U.S. decennial census data and 2013 American Community Survey (IPUMS); Pew Research Center, (2015). Modern immigration wave brings 59 million to U.S., driving population growth and change through 2065: Views of immigration's impact on U.S. society mixed, Washington DC: September, p.39.

4) Passel, J.S., Cohn, D., etc.(2013). Population Decline of Unauthorized Immigrants Stalls, May Have Reversed, Washington, DC: Pew Research Center.

5) Pew Research Center, (2012). The Rise of Asian Americans, Washington, DC: Pew Research Center.

지하계 되고, 다음으로 동양인이 백인보다 그 비율이 높아져 20% 이상에 이르렀다. 한편, 2013년에는 동양인이 35%로 미국의 신규 이민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1970년대까지는 백인, 1980~2000년대에는 히스패닉, 2010년대 이후에는 아시아계 동양인이 신규 이민자의 주류로 변화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3) 성별 및 연령

2013년 기준, 이민자의 남녀성비는 49:51로 지난 수십년간 큰 변화 없이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신규 이민자들의 성별은 중앙 및 남아메리카계 이민자가 증가하던 1980년 이후에는 남성의 비율이 51~53%에 이르렀으나, 불법체류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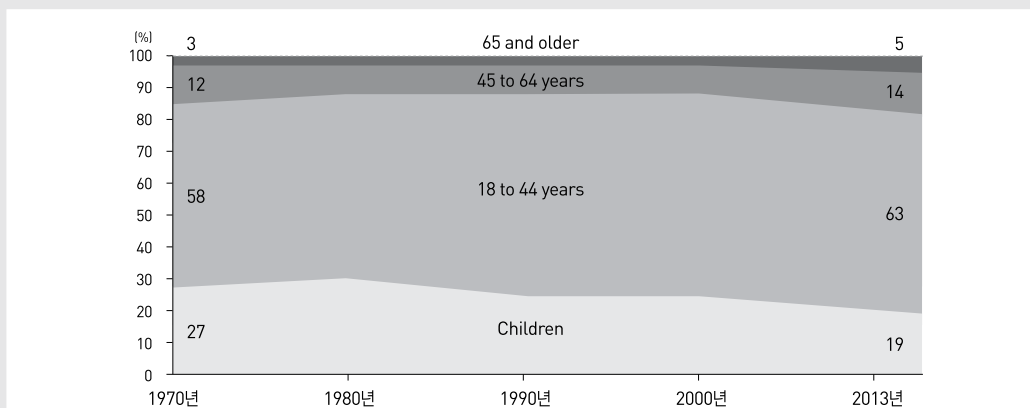
경우 남성이 대부분이므로 이들 숫자의 감소로 인하여 여성의 비율이 약간 더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⁶⁾. 주요 연령은 18~44세이며, 그 다음은 17세 이하의 아동이다. 1965년의 「이민 및 국적법」이 가족의 결합을 강조하게 됨에 따라 신규 이민자 중 아동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80년 30%에서 2013년에는 20% 미만으로 떨어졌다. 한편 2013년 당해 미국으로 정착한 신규 이민자의 중위 연령은 43.1세로 미국에서 태어난 내국인의 35.9세보다 7.2세가 더 많았다.

4) 교육수준 및 직업

과거에 비해 신규 이민자들의 교육수준은 향상되었다. 예를 들면, 25세 이상 성인 중·고등학교

그림 2. 연령별 신규 이민자의 비율(1970~2013년)

(단위: %)



자료: Pew Research Center tabulations of 1970~2000 U.S. decennial census data and 2013 American Community Survey (IPUMS); Pew Research Center, (2015). Modern immigration wave brings 59 million to U.S., driving population growth and change through 2065: Views of immigration's impact on U.S. society mixed, Washington DC: September, p.41.

6) Fry, R.(2006). Gender and Migration, Washington, DC: Pew Research Center.

교 졸업자는 1970년 50%였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에는 77%에 이르렀다. 대학교 졸업자의 경우에는 1970년 20%였으나 2013년에는 41%로 증가하였다. 신규 이민자와 미국에서 출생한 내국인의 교육수준을 비교할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는 내국인이 90%로 이민자보다 13%p 높았으나, 대학 졸업자는 내국인이 30%로 이민자보다 11%p 낮았다. 석사 이상 졸업자는 신규 이민자는 18%, 내국인은 11%로 이민자의 학력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직업에 있어서는 신규 이민자의 관리 및 전문직의 비율이 증가한 것이 괄목할 만하다. 2007년에는 이민자의 동 직종 비율이 19%였으나 2013년에는 28%로 증가하였다. 관리 및 전문직의 경우, 타직업군에 비해 통상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학력을 요구하는데, 이는 일부 지역에서의 아시아계

이민자의 증가와 불법체류자의 감소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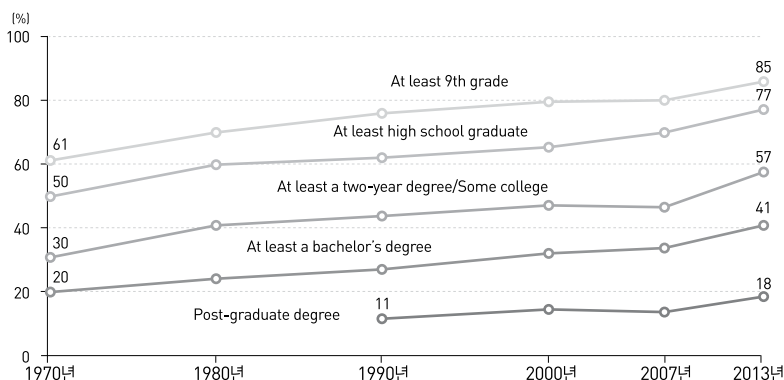
5) 가구소득 및 빈곤수준

신규 이민자와 내국인 간의 소득격차는 1965년 「이민 및 국적법」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2013년 신규 이민자의 가구중위소득은 \$40,000로 내국인의 \$61,000보다도 \$20,000 이상 낮았다. 내국인과 달리 이민자의 가구중위소득은 1970년대 이후 향상되지 않고 있는데, 그 원인 중 하나로 가구원수의 변화가 지적되고 있다. 즉, 미국에서 출생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가구원수가 점차 감소한 반면, 신규 이민자는 부양해야 할 가구원수가 변화가 없거나 증가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소득격차의 확대에 의해, 빈곤수준 역시

그림 3. 교육수준별 신규 이민자의 비율(1970~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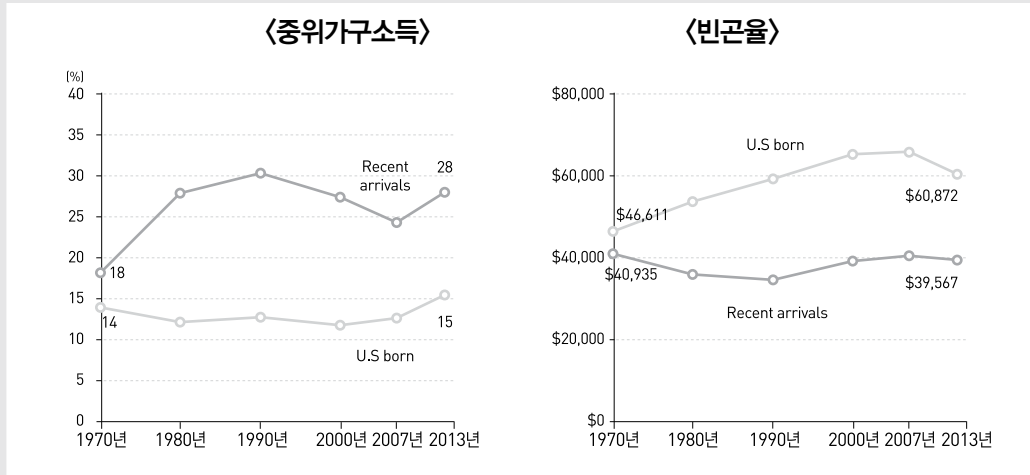
(단위: %)



자료: Pew Research Center tabulations of 1970–2000 U.S. decennial census data and 2013 American Community Survey (IPUMS); Pew Research Center.(2015). Modern immigration wave brings 59 million to U.S., driving population growth and change through 2065: Views of immigration's impact on U.S. society mixed. Washington DC: September. p.42.

그림 4. 신규 이민자와 내국인 간 중위가구소득 및 빈곤율(1970~2013년)

(단위: \$, %)



자료: Pew Research Center tabulations of 1970–2000 U.S. decennial census data and 2013 American Community Survey (IPUMS); Pew Research Center.(2015). Modern immigration wave brings 59 million to U.S., driving population growth and change through 2065: Views of immigration's impact on U.S. society mixed, Washington DC: September, p.46–47.

신규 이민자와 내국인 간에 격차를 보이고 있다⁷⁾. 빈곤선 이하에 해당하는 비율은 1970년에는 이민자 18%, 내국인 14%에 불과했던 반면, 2013년에는 신규 이민자의 빈곤율은 증가하여 28%에 이르렀으나 내국인은 큰 차이 없이 15%에 머무르고 있다.

3. 이민이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

1) 인구증가

이민은 미국 인구변화의 주요한 원동력으로 작

용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민자에 의한 인구변화에 큰 역할을 한 것은 1965년의 「이민 및 국적법」으로, 동 법은 기존의 국적별 쿼터 시스템을 폐지하고 이민자 가족의 재결합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고도의 숙련된 기술을 가진 노동자 또는 고학력자의 미국 내 취업을 영주권 발급 등을 통해 노동시장에서의 질적인 성장도 동시에 유도하였다. 그 결과, 합법적인 영주권자의 수는 1965년 29.7만명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대 중반부터 매년 약 백만명씩 증가하였다. 물론 이 과정에서 미국 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불법체류자 역시 1990년대 이후 약 50만명씩 매년 증가하였으며, 2014년 현재 불법체류자는 11.3백만명으로 추정되고

7) DeNavas-Walt, C., & Proctor, B.D.(2014). Income and Poverty, in the United States: 2013. Current Population Reports, Consumer Income, p.60–249. Washington, DC: U.S. Census Bureau.

있다⁸⁾.

미국의 전체 인구와 비교할 경우, 합법 및 불법 이민자를 모두 포함한 이민자의 비율은 1965년 5%에서 2015년 현재 14%에 이르고 있다. 만일 현재 이민자의 증가 추세가 지속된다면 2065년 전체 미국 인구 중 이민자 비율은 17.7%로 78.2백만에 이르게 된다. 만일 이들 1세대 이민자와 미국에서 출생한 2세대 이상의 자손들까지 포함한다면, 2015년 기준으로는 전체 인구 대비 26%, 2065년에는 36%를 구성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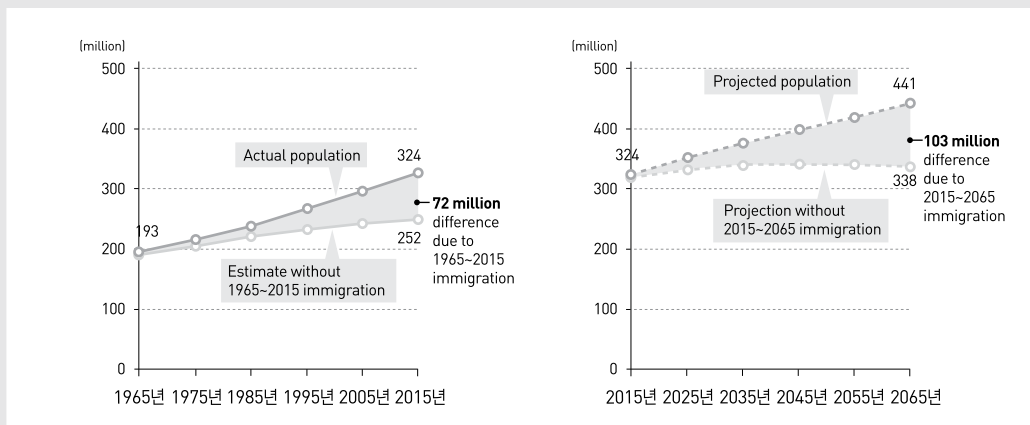
한편, 미국 인구 총 조사 데이터에 기반한 인구 추계 분석결과에 의하면, 현재의 인구동향이 지속될 경우 향후 이민자와 그 후손들은 미국 인구변화의 중심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1965년 이후 50년간 신규 이민자의 유입으로 인하여 미국의 인구는 252백만명보다 72백만명이 더 늘어난 324백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55%의 기여율). 그러나 앞으로는 그 기여율이 더 증가하여 2015~2065년 사이에 미국의 전체 인구는 441백만명으로 증가하게 되고, 이민자들이 이에 기여하는 정도는 103백만명에 해당하는 88%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즉, 동 기간 이민자의 유입이 없다고 간주할 경우, 2065년 미국의 인구는 338백만명에 불과하나, 현재와 같은 추세로 이민자가 유입될 경우 103백만명이 증가한 441백만명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민자의 증가는 미국 인구의 연령을 다소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이민자를 포함한 전체 미국

그림 5. 이민자 유입에 따른 미국 내 인구추계(1965~2065년)

(단위: 백만명)



자료: Pew Research Center estimates for 1965-2015 based on adjusted census data; Pew Research Center projections for 2015-2065; Pew Research Center.(2015). Modern immigration wave brings 59 million to U.S., driving population growth and change through 2065: Views of immigration's impact on U.S. society mixed, Washington DC: September, p.24-25.

8) Chishti, M., Hipsman, F., & Ball, I.(2015). Fifty Years On, the 1965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Continues to Reshape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Migration Policy Institute.

인의 1965년 중위연령은 28세였으나 2015년 38세, 2065년 42세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1965년 이후 이민자가 유입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서까지 전체 미국인의 중위연령은 2015년 41세였다. 그리고 2015~2065년까지 이민자가 유입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서는 2065년 중위연령은 45세로 전망된다. 즉, 이민자가 유입됨으로써 미국인구의 연령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미국이 고령화사회로의 진입을 지연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아시아계 이민자의 급증

이민자의 인종별로 살펴보면,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이민자의 대다수는 유럽계 백인이었으나, 그 이후 남미계 히스패닉이 전체 이민자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히스패닉 이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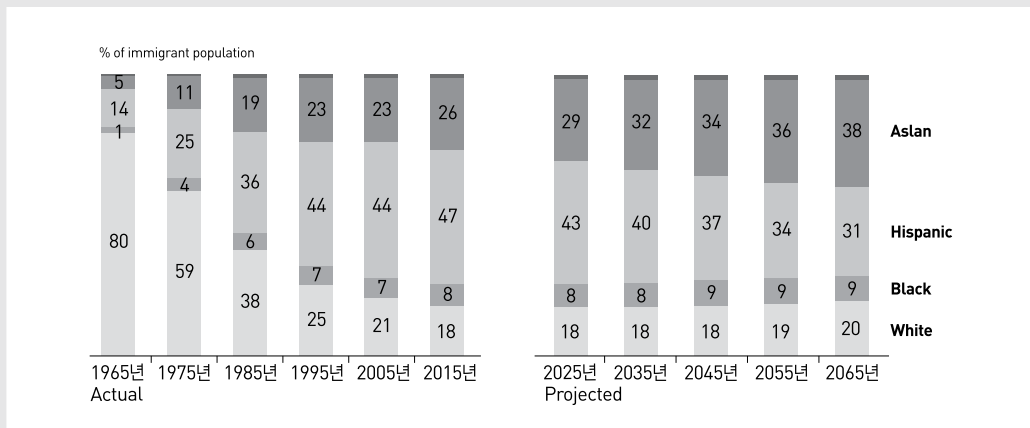
자의 증가 추세는 200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2005년 이후 히스패닉 이민자의 비율이 점차 감소하면서 2025년 43%, 2045년 37%, 2065년 31%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아시아계 동양인의 경우 196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55년부터는 히스패닉 이민자를 넘어서서 이민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백인과 흑인 이민자의 비율은 정체 상태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결과, 향후 약 50년 뒤에는 미국 내에서 특정 인종이 주류로 남아있지 않게 되고, 인종별로 균형있는 구성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이민자에 대한 인식

현재 미국인들의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그림 6. 전체 인구 대비 이민자의 인종별 분포추계(1965~2065년)

(단위: %)



자료: Pew Research Center estimates for 1965–2015 based on adjusted census data; Pew Research Center projections for 2015–2065; Pew Research Center.(2015). Modern immigration wave brings 59 million to U.S., driving population growth and change through 2065: Views of immigration's impact on U.S. society mixed. Washington DC: September. p.31.

다. 먼저 45%의 미국인들은 미국 내 이민자들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미국 사회를 좀 더 개선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줄 것이라 기대한 반면, 37%는 그 반대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절반에 가까운 49%의 미국인들은 미국으로의 이민이 감소하길 기대하고 있었으며, 82%는 미국 이민제도는 상당한 수준의 변화나 제도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절반에 해당하는 미국인들은 이민자들이 경제를 악화시키거나 범죄 발생률을 높일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으며, 사회적·도덕적 가치에 대한 변화는 중립적인 의견이 많았다. 반면, 과학이나 기술의 발전에 이민자의 기여도는 높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56%에 달했다. 그러나 음식, 음악, 미술 등 문화·예술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민자들의 긍정적인 기여도가 높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인상적인 점은 아시아계와 유럽계 이민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이 높아 이들 집단은 미국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응답한 반면, 남미와 중동국가에서 온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미국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는 남미국가 이민자들의 불법체류 문제와 중동국가와의 정치·종교적 갈등, 테러, 폭력사태 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인식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향후 사회통합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언어나 미국사회로의 적응과 관련하여 이민자들이 미국사회에 적응하거나 동화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나 여전히 이민자와 내국인 간의 갈등요인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4. 나가며

미국은 이민자에 대한 기초통계자료를 꾸준히 수집하여 이민자의 현황 및 특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변화를 전망해 올 수 있었다. 현 시점에서 미국의 이민동향과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보다 지금과 같이 이민자의 유입이 지속되리라는 전제 하에서 예측되는 것이다. 이민자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전망의 핵심내용은 다음의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먼저, 이민자의 유입은 미국 인구의 증가와 함께 연령을 일정 수준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역시 2010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이후 고령화사회로의 진입이 시작되었다. 1965년 이후 이민자의 대거 유입은 2015년과 2065년 미국의 중위연령을 3세 정도 젊게 만드는 역할을 하였다. 특히 18~44세 이하의 활동적인 생산가능인구의 증가가 이에 큰 기여를 하였다. 따라서 인구구조에 있어 중간연령대 이하 계층이 확대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남미,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의 1세대 이민자들의 출산율은 높은 편이어서 인구증가에 일정 정도 기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와 유사한 수준과 형태의 인구유입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만 생산가능인구가 확대되고 연령이 낮아지는 것이므로, 단순히 이민자 증가로 인해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지연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민자의 증가로 인해 중고령층이 향후 더 확산될 수도 있다. 또한, 사회경제적인 기반이 부족한 이민자들이 저소득층 또는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도

있어 이들을 부양해야 하는 사회경제적 비용부담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음으로 이민자의 유입을 통해 인종 및 민족 구성이 다양화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미국으로의 이민은 주로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계 백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이민문호에 대한 확대 개방 이후 세계 각국의 나라에서 미국으로의 이주가 확대되었다. 현재와 같은 추세로 이민자 증가가

지속될 경우, 미국은 특정 인종에 치우침 없이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공존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지금도 미국 내에서는 이민자의 수용에 대한 찬반논의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이민자에 대한 인식도 양면적이어서 언어·문화·정치·종교적으로 상이한 집단들 간의 사회통합이 향후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악화될 위험성도 있다. ¹⁰⁾